

# 산업계, 마블 '슈퍼히어로'와 콜라보 열전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 개봉 마케팅 한창 유통·뷰티·금융 등 다채로운 영역에서 협업 히어로 캐릭터 인기 힘입어 매출 상승효과 기대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산업계 전반에 마블의 '슈퍼히어로 캐릭터'가 뜨고 있다.

마블 스튜디오가 처음 선보이는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7월5일 개봉하면서 이를 겨냥한 상품 출시와 마케팅이 줄을 잇고 있는 것. 그간 마블이 제작하는 진짜 스파이더맨을 고대해 온 마니아들의 관심을 유통 특수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스파이더맨'을 테마로 한 마케팅이 눈에 띈다. 삼성카드가 대표적으로, 7월31일까지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 개봉 기념 한정판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 삼성카드 홈페이지 및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삼성카드 가맹점·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레고가 '스파이더맨: 홈커밍' 개봉을 맞아 스파이더맨의 실감나는 전투 장면을 담은 미니피겨 '마블 슈퍼히어로 시리즈' 신제품을 내놓은 것과 홈플러스가 패셔너블 브랜드 'F2F'를 통해 스파이더맨 캐릭터 반팔티셔츠를 선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통·뷰티·금융 등 다채로운 영역에서 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판권 포인트다.

뷰티업계 대표주자는 더페이스샵으로, '더페이스샵 X 마블' 협업 제품을 한정 출시했다. 캡틴 아메리카·아이언맨·토르·블랙 위도우 등 마블의 어벤저스 캐릭터들이 담겼다. 대표 제품인 '안티 다크닝 쿠션'의 경우 캡틴 아메리카의 심볼인 방패를 차용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화장이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효과를



산업계 전반에 마블의 '슈퍼히어로 캐릭터' 활용 바람이 불고 있다. 고객에 친숙하게 다가가는 한편 상품특징을 부각시키고, 매출 상승효과까지 노린다는 전략이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홈플러스 'F2F' 마블 스파이더맨 캐릭터 티셔츠, 더페이스샵의 '더페이스샵X마블' 협업 제품, 삼성카드 '스파이더맨 홈커밍' 한정판 기프트카드. 사진제공 1 더페이스샵·홈플러스·삼성카드

표현했다. AK플라자는 유통업계 대표로 동참한 케이스. 7월 16일까지 열리는 여름세일 테마를 마블과 함께하는 'S AVE OUR SUMMER, MARVEL'로 잡았다. 매년 반복되는 세일 패턴에 피로감과 지루함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색다른 테마로 준비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 분당점 1층 피아짜360 광장은 아이언맨·캡틴 아메리카 등 마블 인기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는 마블 히어로즈 월드로 연출했다. 분당점과 수원AK타운점에 피규어·생활용품·패션 상품 등을 총망라한 마블 팝업 스토어 운영도 눈에 띈다.

금융업계 대표로는 SC제일은행으로, 최근 아이언맨·캡틴 아메리카 캐릭터를 활용한 체크카드와 통장을 내놓았다. 향후 5년 간 마블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는 게 회사 측 소개다.

이렇듯 마블 '슈퍼히어로 캐릭터'가 뜨고 있는 것은 킬드족을 필두로 다양한 연령층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킬드'는 '키드'(Kid: 어린이)와 '어덜트'(Adult: 어른)의 합성어로 아이와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을 뜻한다.

여기에 슈퍼히어로 특유의 친근함을 앞세워 고객에게 친숙하고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음은 물론, 캐릭터 이미지를 통해 상품 특징을 부각시키고 캐릭터 인기로 힘입어 매출 상승효과도 노린다는 복안이 깔려있다. 업계 관계자는 "슈퍼히어로 캐릭터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제품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다"며 "강력한 연상 작용과 함께 제품 인지도 향상 효과가 큰 만큼 매출 상승·신규 고객 창출·제품 이미지 변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 금융 서비스가 AI기기 속으로 '쏘옥'

KT '기가지니'서 주식시황 등 정보 제공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와도 연동 추진

말 한마디로 주식정보는 물론 계좌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AI)과 금융이 만났다. 정보기술(IT)기업들이 AI 기술개발과 외연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 부문에도 발을 넓히고 있어 주목된다.

KT는 29일 AI IPTV셋톱박스 '기가지니'가 출시 5개월 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AI 금융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30일부터 음성인식을 이용한 주가 및 지수 조회, 차트 조회, 국내외 시황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4월 미래에셋대우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이뤄졌다.

양사는 향후 비대면계좌 개설 및 주식 실거래 등과 같은 추가적인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KT는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와도 서비스 연동을 추진 중이다. 기가지니를 통해 케이뱅크 소개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팝업 호출 등을 30일 먼저 제공한다. 이어 9월 중으로 퀵송금, 계좌조회 등을 집에서 음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카우치 뱅킹'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SK텔레콤도 최근 삼성증권과 '음성 AI 금융서비스' 제공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관련 서비스를 3분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AI 스피커 '누구'를 활용해 사전에 등록된 관심종목의 주식 시세 조회는 물론 국내외 주가지수 및 시황 정보 안내, 주식 종목 및 펀드 추천, 삼성증권 고객센터 통화 연결 등이 가능하다. 3분기에 증권조회 기능 중심의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예정이며, 향후 투자 수익을 분석이나 대화형 맞춤 상품 추천도 가



IT기업들이 인공지능(AI) 기기에 금융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며 외연 확대에 나섰다. 10만 가입자를 돌파한 KT AI 금융서비스를 선보이는 KT의 IPTV셋톱박스 '기가지니'. 사진제공 1 KT

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에 앞서 KBB하나은행과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누구'를 통해 말 한마디로 인터넷뱅킹 은행계좌 잔액·거래내역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이 같은 서비스를 증권·보험·카드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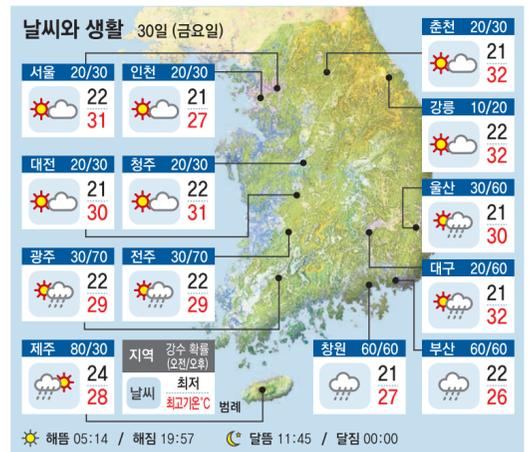
### 인사

한국관광공사 <전보> △국립관광정책팀 팀장 김민진 △속박개선팀장 이병선 <파견> △서울관광마케팅 주상용 NH투자증권 <선임> △반포WM센터장 이원규 <전보> △잠실WM센터장 강대철 △충무아트센터 <승진> △공공연기회부장 최명준 △시설관리부장 김준엽

### 부고

◇오태동 씨 별세·마일영 프리아구 한화이글스 코치 장인상=27일 대전 충남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20분 042-280-8181

뉴스디자인 | 신하늬 기자



산 날씨	바다 날씨	미세 먼지
북한산 22/30	인천송도 21/28	서울 37 보통
설악산 21/31	제주도 20/29	부산 55 보통
오대산 18/30	경포대 22/31	대구 59 보통
개룡산 20/29	속초 21/30	인천 50 보통
속리산 20/29	대전 21/27	광주 50 보통
소백산 21/30	안면도 꽃지 21/28	대전 44 보통
팔공산 21/32	변산반도 21/28	울산 65 보통
지리산 20/28	거문도 22/24	경기 58 보통
덕유산 19/29	철포 23/30	강원 36 보통
내장산 21/28	해운대 21/25	충북 40 보통
한라산 21/25	제주도 23/25	경남 67 보통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1일(토) 서울경기 22/30 23/33 23/30 23/30 22/27 24/30
2일(일) 서울경기 22/27 24/28 24/28 23/30 23/30 22/27 24/31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30일(금요일) 음력: 윤 5월 7일

쥐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 파도, 힘 넘친다. 운세: 당면한 일에 충성을 기하면 외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날이다. 젊은 남성의 자문이 도움이 된다.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 쾌청, 험한 하루. 운세: 매사 마음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통해 일을 추진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말라.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 여명, 일출 직전. 운세: 직장인은 능력을 인정 받게 되지만 근처에 적이 도사리고 있는 날이다. 자신감이 넘쳐 열심히 활동하지만 주위사람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 신기루, 공상 많다. 운세: 근면만이 성공과 연관되는 운세로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배우자로 인하여 신경 써야 될 일이 생기지만 곧 슬기롭게 해결할 것이다. 길방: 북
용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 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며, 가정사로 인해 마음이 상한다. 행동보다는 내면적 마음가짐을 다잡는 것이 도움을 얻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길방: 서
뱀 행운색: 청색	오늘의 마음: 맑음, 평화롭다. 운세: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될 것이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길방: 동
말 행운색: 청색	오늘의 마음: 해·번개, 갈등. 운세: 오늘은 쥐날이다. 말은 쥐를 만나면 서로 부딪힌다.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제까지 잘 나갔던 사람은 흥운이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길운이다. 길방: 동
양 행운색: 청색	오늘의 마음: 싸늘, 소심한 날. 운세: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간다. 문학이나 예술 분야 또는 시력 준비 과정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멋지게 발휘하는 날이다. 길방: 동
원숭이 행운색: 노랑	오늘의 마음: 쾌청, 상쾌. 운세: 승부욕이 강해지고 매사 활동적이어서 사업상 외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영업 실적 또한 증대되나 지나친 욕심은 손재주 연결된다. 선배의 지원을 받게 된다. 길방: 중앙
닭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 구름, 자유 추구. 운세: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오늘은 괜히 성질부리다 자신만 상처 입는 날이다.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 여우비, 겨우 만족. 운세: 강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경쟁상手的인 사람을 조심하라.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 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몇몇하지 못하다. 오늘은 고독하며 반복되는 일이나 중박되는 일로 피곤한 날이지만 외의 수익도 있다. 길방: 동
재운 코너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2, 4, 7, 9, (3, 5) 금일복권, 주식, 부동산매입 행운의 띠: 소, 뱀, 닭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호랑이, 말, 개

한국ABC 인증 스포츠신문 발행부수 1위 스포츠동아는 성인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 강주현의 퍼즐월드

	3		2		5		4	
5		6				8		3
	1			8			2	
3				7				9
		7	9		8	5		
8				5				2
	7			2			9	
1		3				2		7
	4		5		7		6	

			8		2		5	
2		4		7		1		
	6	7				9	8	
3				9				7
	4		7		1		3	
1				2				8
	9	2				3	7	
	3		4			8		9
	5		2		9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토쿠정답 (모바일) WWW.경품광고퀴즈.kr (모바일) WWW.매직스도쿠.kr

8 9 1 1 8 9 2 7 6	1 7 9 6 8 2 8 9 4
4 9 2 6 9 7 6 8 1	6 2 8 7 7 9 8 1 9
7 6 8 1 2 8 9 7 9	5 2 8 9 8 1 2 6 7
2 1 7 9 9 8 1 6 8	8 6 5 7 2 8 9 2 1
1 8 9 8 7 6 1 9 2	9 8 2 1 9 5 6 7 8
6 8 9 8 1 1 7 9 8	1 7 7 8 6 9 9 2 8
5 2 2 8 8 9 6 1 7	2 8 6 8 1 7 2 9 5
8 1 8 7 6 1 2 9 2 5	8 9 1 9 2 6 7 8 2
9 7 6 9 1 2 8 8 4	7 5 2 2 9 8 1 8 6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영연 대표전화 02 2020 0114 전담편집부 02 2020 1065 편집부 02 2020 1032 경제부 02 2020 1062 스포츠1부 02 2020 1041 뉴미디어팀 02 2020 1027 스포츠2부 02 2020 1059 사진부 02 2020 1069 광고국장 이승욱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인쇄 동아일보사 sol@donga.com www.sportsdonga.com (우)03187 서울특별시 중구 성제1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